

S-OIL MAGAZINE
JULY VOL.392



제8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가족 이야기



표지이야기

97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 달성(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을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검사부를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5~19쪽)

통권 제392호

발행일 2014년 7월 3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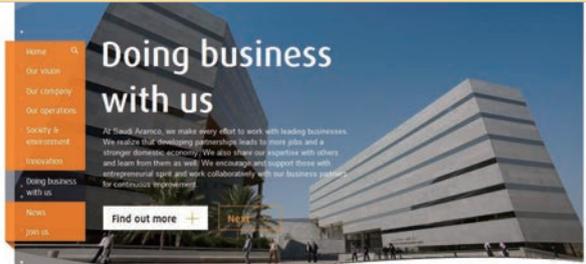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04

주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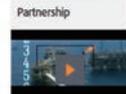
사우디 아람코, 한진 보유지분 매입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난세이석유와 MOU 체결 등



AOC agrees to acquire Hanjin Group's stake in S-Oil

Aramco Overseas Company B.V. ("AOC") has agreed in principle to acquire the Hanjin Group's (the "Group") entire stake in S-Oil Corporation ("S-OIL") comprising approximately 32 million shares representing 28.4%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common shares of S-OIL, for a total amount of ₩ 1,982,982,332,000 (or approximately US \$1.95 billion at current exchange rate). This share purchase will increase AOC's ownership interest in S-OIL from 34.99% to 63.4%. The transaction is contingent on the execution of formal transaction agreements and regulatory approvals.



15

최강 팀

최고의 실력이 높은 업무효율의 비결입니다
검사부



20

소식 모아보기

사우디 인턴사원 교육
멘토링 활동

22

두런두런 수다방

이들에게 선물한 여행의 행운
역사 속 위대한 고구려를 만나

26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홀트아동복지회 다문화쿠కి클래스 & 급여우수리 나눔
햇살나눔 단신

32

No.1 주유소

정품·정량으로 지키는 고객 향한 의리!
경북 안동 경안주유소



34

가족 이야기

서로 의지하는 우리는 영원한 한 팀
검사2과 박종욱 사우 가족



38

걷고 싶은 길

서동의 꿈과 비밀을 좇는 아름다운 여정
익산 돌레길 3코스 '무왕길'

42

나의 롤모델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야구선수 이승엽>

44

야호! 축제다

뜨거운 도시 대구, K뮤지컬의 용광로가 되다
2014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46

열린 서재

비옥한 땅, 환경이 낳은 문명의 격차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48

마음 읽기

먹어도 먹어도 "맨날 배고파~" <탄수화물 중독>

50

독자광장

사우디 아람코, 한진 보유지분 매입 “S-OIL 성장 적극 지원” 약속

알 팔리 총재, 공식 발표문 통해 “S-OIL·한국경제에 대한 확신” 강조
마하서 CEO, 건전한 재무구조 통해 적극적인 투자 추진

“

이번 주식 매입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과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아람코사의 전략을 보여주며, 이는
S-OIL의 성장에 대한 AOC의 적극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알 팔리 총재

”



“

아람코가 한진 보유지분을 전량 인수한 것을 계기로
에스-오일은 더욱 건전한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투자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 성장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

마하서 CEO

”



에스-오일에 대한 사우디 아람코의 지분율이 34.99%에서 63.4%로 증가한다. 한진그룹 보유지분을 전량 인수한 것을 계기로 우리회사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회사 최대주주인 AOC(Aramco Overseas Company B.V.)는 7월 2일 한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오일 지분 3천198만 주를 매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 아람코의 칼리드 알 팔리(Khalid A. Al-Falih) 총재는 발표문에서

“이번 주식 매입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과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아람코사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S-OIL의 성장에 대한 AOC의 적극적인 지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지난 20여 년간 대주주로서 에스-오일의 성장을 이끌어온 아람코가 한진 보유지분을 전량 인수한 것을 계기로 에스-오일은 더욱 건전한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투자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 성장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우디 아람코 발표 전문

국문

AOC, 한진그룹의 S-OIL 지분 매입에 동의

Aramco Overseas Company B.V. (“AOC”)가 한진그룹이 보유한 S-OIL 주식 전량에 해당하는 약 3천200만 주(기발행 보통주의 28.4% 상당) 매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금액은 1조 9천829억 원(미화 19억 5천만 달러) 상당이다. 이번 주식 매입으로 AOC의 S-OIL에 대한 지분율은 34.99%에서 63.4%로 증가한다. 이번 거래는 정식 계약 체결 및 관계기관의 승인 이후에 확정된다.

이번 거래와 관련하여, AOC의 Managing Director인 파하드 압둘 카림(Fahad Abdul Kareem)은 AOC가 S-OIL이 건전한 재무성과를 유지하고, 사업의 가치와 시장 내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 아람코의 칼리드 알 팔리(Khalid A. Al-Falih) 총재는 “이번 주식 매입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과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아람코사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S-OIL의 성장에 대한 AOC의 적극적인 지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년간 S-OIL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 데 대해” 한진그룹에 감사 표시하면서 그룹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기원도 덧붙였다.

AOC는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로서 투자 및 Joint Venture 활동 등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석유, 가스, 석유화학 분야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S-OIL의 대주주가 되었다.

Saudi Aramco는 통합적인 글로벌 에너지·석유화학 기업으로서 석유 탐사, 생산, 원유 정제, 유통 등에 있어서 세계적 리더 기업이며, 세계 일등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기업이다.

영문

AOC agrees to acquire Hanjin Group's stake in S-Oil

Aramco Overseas Company B.V. (“AOC”) has agreed in principle to acquire the Hanjin Group’s (the “Group”) entire stake in S-OIL Corporation (“S-OIL”) comprising approximately 32 million shares representing 28.4%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common shares of S-OIL, for a total amount of ₩ 1,982,982,332,000 (or approximately US \$1.95 billion at current exchange rate). This share purchase will increase AOC’s ownership interest in S-OIL from 34.99% to 63.4%. The transaction is contingent on the execution of formal transaction agreements and regulatory approvals. In commenting on the transaction, AOC’s Managing Director Fahad AbdulKareem emphasized AOC’s unwavering commitment to maintaining the sound financial performance of S-OIL and to enhancing the value of the business and its competitive market position.

“This transaction underscores Saudi Aramco’s confidence in the Korean economy and its strategy to enhance its presence in the growing Asian markets and AOC’s commitment to S-OIL growth,” said Khalid A. Al-Falih, Saudi Aramco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while expressing his gratitude to Hanjin Group “for a mutually rewarding partnership with Aramco Overseas Company in S-Oil over the past 7 years,” and communicating Saudi Aramco’s wishes for the Group’s future success.

Aramco Overseas Company B.V. (AOC) is a subsidiary of the Saudi Arabian Oil Company (Saudi Aramco). It provides support services to Saudi Aramco and through its investments and joint ventures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global Saudi Aramco oil, gas and chemicals enterprise. It has been a major shareholder of S-OIL since 1991.

Saudi Aramco is a fully integrated, global energy and chemicals enterprise and a world leader in exploration and production, refining and distribution, and the world’s top exporter of crude oil and natural gas liquids

특색 있는 전통 세운 별들의 각축장

제8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제8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가 지난 6월 15일 전인지 선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도 우리 대회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화 점화를 통해 개막을 알렸다. 시상식에서는 대회 우승자뿐 아니라 2위, 3위 선수도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아 골프팬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차별화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는 KLPGA 투어의 주요대회로 입지를 구축했다.

글 이상민(브랜드마케팅팀) 사진 전부순

2014년 KLPGA투어 10번째 대회인 '제8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 2천만 원)이 6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 위치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6,625야드)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첫날인 1라운드에는 권지람(롯데마트)이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담아 7언더파 65타를 기록하여 5언더파 67타를 친 전인지(하이트진로), 이민영 등 공동 2위를 2타차로 따돌리며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 3승을 노리는 '슈퍼루키' 백규정(CJ오쇼핑)은 2언더파를 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화창한 날씨로 시작한 둘째 날 2라운드에는 전인지가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는 맹타를 휘두르며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10언더파를 기록한 전인지는 박소연(하이마트)에게 한 타 앞선 단독선두로 올라서 올 시즌 첫 승의 기회를 잡았다. 95년생 루키 돌풍의 중심인 김민선(CJ오쇼핑)이 2라운드에서만 무려 7타를

줄여 3위(8언더파 136타)에 올랐고, 이민영이 단독 4위(7언더파)로 뒤를 이었다. 한편 1라운드 선두였던 권지람은 챔피언조가 부담되었는지 이날만 5타를 잃고 공동 32위(2언더파)로 떨어졌다. 한편 공동 73위(2오버파 146타)로 경기를 마친 이다솜(한화)은 이벤트홀인 16번홀(파3/149야드)에서 짜릿한 홀인원을 기록해 'S-OIL 1년 주유권'을 획득하며 예선탈락의 아쉬움을 달랠다.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는 2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로 나선 전인지가 3번홀(파3/153야드)에서 티샷을 bunker에 빠뜨리고도 bunker샷을 버디로 연결하는 등 전반에 2타를 줄이며 우승에 다가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전인지는 후반 들어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주춤했다. 그 사이 이예정(하이마트)과 이민영이 2타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우승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예정과 이민영은 각각 18번 홀, 17번 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결국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67-67-70)를 기록한 전인지 선수가 우승컵을 안았다.

전인지는 “언니가 멀리서 응원하러 왔는데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우승해 더욱 뜻 깊다. 올해 목표는 꾸준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2년차 징스크를 많이 얘기하는데 샷감, 퍼팅감 등은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기 보다는 대회에 즐겁게 임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오겠지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에서 우승하게 돼서 기쁘다.”고 우승소

감을 말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2위 이예정, 3위 이민영도 시상대에 올라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의 순간을 함께 했다. 김혜윤(비씨카드)이 8언더파 208타로 4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김민선이 5위(7언더파 209타)에 올랐다. 시즌 3승을 노리던 백규정은 공동 21위(3언더파 213타)에 그쳤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S-OIL 캐릭터 '구도일'이 대회장 곳곳을 누비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선수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진행하며 홍보대사 노릇을 톡톡히 한 것. '구도일'은 귀여운 외모로 선수들과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 그리고 TV중계를 시청하는 골프팬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올해도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만의 전통인 역대 우승 선수들의 릴레이 성화 점화식을 통해 개막을 알렸으며, 골프대회 최초로 1/2/3위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대회 우승자뿐만 아니라 정상을 향해 노력한 2위, 3위 선수들도 축하해 주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우리 대회만의 특색 있는 전통을 이어가며 주목받는 한국여자프로골프 대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회는 KLPGA투어 주관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낮 12시부터 17시까지 매 라운드 단독 생중계됐다. 🌻



정상을 향한 쾌속질주!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대회 이모저모

▶ 프로암대회 시상식은 본 대회에 앞서 열기를 더했다.



▶ 프로암 만찬에서는 초대기수가
현장 분위기를 띄워주었다.

“
프로암대회에는
프로선수 및 주요 고객이
참석해 사전 열기를
달려놓았다.
”

▶ 프로암대회 시상식에서 마하서 CEO가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프로암대회

▶ 본 대회에 앞서 주요 고객들을 초청,
프로골퍼들과 동반 라운드를 펼치는 프로암대회가 열렸다.



상호협력을

통한

무한 시너지

난세이석유와 MOU 체결

우리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난세이석유와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글 송경란
사진 전부순
자료제공 김솔하(신규사업팀)

우리회사는 지난 6월 19일 일본 난세이석유(Nansei Sekiyu)사와 전략적 사업 파트너로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어려운 시장상황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본사 이사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나세르 알마하서 CEO는 링컨 이시카와 CEO와 만나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류영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과

히카르도 피로토 CTO(Chief Trading Officer) 등 난세이석유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 체결을 기념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각 임직원이 동참하는 팀을 구성해 향후 6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원료 및 제품 공급 최적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우리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발맞춰 원료와 제품의 수요·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세이석유는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산하의 석유정제기업으로서, 우리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사업에 따른 제품 공급에 발맞춰 시장확대를 적극 모색하면서 회사의 중장기 프로젝트 순항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국경 뛰어넘은 우정의 후원

과학문화재단
에티오피아 시멘트 사업 후원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는 고경력 과학자들의 봉사 단체 '양코르코리아'가 2012년부터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식나눔 활동을 펼쳐온 가운데 그 첫 결실이 에티오피아에서 맺어지게 됐다.

글 관수지(홍보팀)
자료제공 강영욱(운영지원팀)

우리회사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2011년 설립한 'S-OIL 과학문화재단이 다방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양코르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에 시멘트 기술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다. 6월 26일 에티오피아 현지의 ASTU대학(Adama Science Technology University) 시멘트 기술개발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양코르코리아 프로젝트 사업단을 포함한 우리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에티오피아 시멘트산업 발전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재단 최초의 해외 자문 사업인 이번 시멘트 기술 전수 사업을 위해 우리회사는 2012년부터 정부와 함께 쌍용양회 최고 기술진 출신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가동해왔다. 현지를 방문해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센터발전전략·핵심기술전수·기술인력 훈련 등을 수행하는 한편, 에티오피아 최대 시멘트 회사(DERBA)와 기술 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자립 활동을 지원해왔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6천여 명의 병력



을 파견, 유일하게 지원에 나선 아프리카 국가다. 이후 60여 년 만에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기간산업을 위한 기술을 전수하게 돼 후원의 의미가 남다르다. 



아마추어 미술인의 빛나는 축제

아름다운눈빛미술제 후원



우리회사가 1996년부터 후원한 평범한 사람들의 예술축제 '아름다운눈빛미술제'가 열아홉 번째 생일을 맞았다. 올해는 아마추어 미술인들의 열정 가득한 작품 총 548점이 출품돼 성황을 이뤘다.

글 심규억(대외업무팀)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아름다운눈빛미술제'가 올해 19회째를 맞아 성황리에 치러졌다. 아름다운눈빛미술제는 미술에 취미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아마추어 미술인들의 축제로, 우리회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1996년 행사가 시작된 이래 후원활동을 지속해왔다.

올해 미술제는 6월 19일 개막식에 이어 24일까지 6일 동안 작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맞이했다. 본 미술제에 앞선 5월 31일에는 태화강 일대에서 눈빛미술제의 일환으로 '현장사생실기대회 및 문인화 회화대회'를 개최해 풍성한 축제의 장을 미리 선보였다.

미술제 기간에 전시가 마련된 울산문화예술회관에는 대상 이상포 씨의 '태화루의 하루'를 비롯해 총 548점의 출품작이 걸려 미술제에 대한 열띤 호응을 대변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전시작들은 '현장사생실기대회 및 문인화 회화

대회'의 입상작 85점을 포함해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드로잉, 도예, 서각 등 총 9개 분야 작품이 망라됐다.

올해는 특별상을 새로 제정해 더욱 뜻깊었다. 우리회사는 주치를 맡은 (사)울산광역시미술협회와 함께 특별상 2개를 추가로 제정하여 울산지역 아마추어 미술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새 특별상의 영예는 '태화루, 우리 품에 돌아오다'를 출품한 노용택 씨 등에게 돌아갔다.

우리회사는 지난 2009년 '울산메세나 운동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울산광역시미술협회, 병영서낭치기보존회,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회, 울산서예협회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도일리와 함께 신나는 일상!

구도일 축구송과
카카오톡이모티콘

을 상반기 전 세계를 화끈하게 달군 축구이벤트에 맞춰 고객 마음에 우리 브랜드를 강력하게 각인하기 위한 '구도일 축구송'이 서비스됐다. 기존 CM송을 모티프로 활기차게 편곡한 축구송은 힘을 북돋우는 응원 메시지를 가사에 담아 시즌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비즈링 음원과 주유소 음악방송을 통해 6월 13일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DJ구도일 콘테스트'를 진행해 즐거운 참여 이벤트의 장을 활짝 열어줬다. 스마트폰에 '구도일 패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도일리와 부르는 월드컵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레코딩해 응모할 수 있는 'DJ구도일 콘테스트'는 축구송 서비스가 마무리되는 이달 14일까지 지속된다.

우리나라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구도일 이모티콘에 이어 새 이모티콘이 추가 개발됐다. 7월 1일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새 이모티콘은 설문을 통해 이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표현을 골라 보다 풍성하고 재미난 감정·상황을 담았다. 특히 스티커 형태(스티콘)으로 제작해 지난해보다 4종 늘어난 16종이 공개된 가운데, 선착순 30만 명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당초 배부기한인 7월 14일을 채우지 못하고 공개된 지 26시간만에 소진됐다. 다운로드 시점부터 45일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도일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해 우리회사 '플러스친구' 계정과 친구를 맺은 뒤 사용 가능하다.🌟



우리 브랜드 핵심자산인 CM송과 구도일 캐릭터로 소비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참신한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즌에 맞춘 응원가와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이 제작·서비스됐다.

글 김성준·강주혜(브랜드마케팅팀)

구도일 축구송 가사

- 1절 우리는 왜 이리 잘 나가는 걸까~♪ 우리는 대한의 태극전사~♪
아싸~슛~골인, 슛~골인, 슛~골인, 승리는 우리 것~♪ 대한민국이니까~♪
- 2절 오늘은 다 같이 응원하고 싶어~♪ 우리는 오천만 태극전사~♪
다 함께 슛~골인, 슛~골인, 슛~골인, 승리는 우리 것~♪ 대한민국이니까~♪
에쓰~오일 이니까~♪

S-OIL NEWS



안전보건 공생협력 워크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합동 워크숍이 지난 6월 12~18일 진행됐다. 생산부서 보직과장, 세이프티 엔지니어, 안전부서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총 90명이 3차수에 나눠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관리팀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 발표를 비롯해 행동기반 안전 관련 발표(로앤홀 컨설팅) 및 작업위험성평가 교육, 실습

및 발표(KPMC) 등이 이어졌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가운데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우렁이 농법 시연회

울산복지재단이 전량 매입해 이웃나눔에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쌀의 생산지역에서 우렁이 방사 시연행사가 열렸다. 6월 11일 온산농협 삼평 경제사업장(울산시 울주군) 인근 논에서 김용연 전무를 비롯한 농협, 행정기관, 농업인 등 관계자 60여 명은 32.2ha의 논에 1천610kg의 우렁이 종패를 방사했다. 우리회사는 2001년부터 이 지역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쌀을 매입해 울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농가 수익에도 보탬을 주는 상생활동을 지속해왔다.



공정거래 교육

정유영업본부가 6월 17~18일 양일간 본사 3층 대강당에서 '2013년 국내영업본부 공정거래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공정거래 의식고취와 지식함양을 도모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정유영업본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수급부, 재무본부, 법무총괄, 업무팀 등 임직원을 포함한 총 179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관련 정보 동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정종채 변호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위반사례 등 풍부한 케이스를 제시해 공정거래 규제 준수에 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였다.



브랜드송 사연공모 이벤트

우리회사가 인기 보컬 그룹 올랄라세션과 오는 8월 브랜드송 제작을 추진하는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 고객 대상의 사연응모 이벤트인 '나만을 위한 올랄라세션 콘서트'를 진행한다. 최종 당첨자는 올랄라세션이 선출하는 단독 콘서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올랄라세션과 함께 우리회사 브랜드송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 **기간** 2014년 7월 1~31일 (한 달간)
- **내용** 평소 '꼭 한번 봐야지 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의 특별한 사연'
- **방법** 보너스카드 홈페이지(<http://www.s-oilbonus.com>)의 이벤트 페이지에 50자 내외로 사연 작성
- **선물** 사연 응모자와 사연 속 주인공 두 사람만을 위한 올랄라세션의 단독 콘서트, S-OIL 브랜드송 뮤직비디오에 올랄라세션과 함께 출연
- **발표** 2014년 8월초(예정), 당첨자 개별 통보

임원동정

김준복(부장.법인영업팀리더)→상무보(법인영업팀리더)

인사동정

팀리더(대행)임명

이영호(2급.총무부문 구매관리파트리더)→구매관리팀 리더(대행)

보직변경

6.9 이정익(1급.RUC추진1팀리더)→Downstream 추진팀리더 서봉교(2급.RUC추진1팀)→RUC추진1팀 리더(대행) 황산악(2급.시설투자기획팀) 조영빈(3급.RUC추진1팀) 김정훈(4급.RUC추진1팀) 송진호(5급.분해 공정부 RFCC공정과정유생산공장 파견) 이재찬(5급.석유화학공정팀-Aromatics생산공장 파견) 이흥규(5급.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Downstream 추진팀 최우혁(5급.분해공정부 RHDS공정과) 조준형(5급.공정Upgrading추진부 HOU 혁신2과)→RUC추진1팀 김상배(2급.계전부 전기과장) 남호철(2급.장치부 기계1과장) 박성호(3급.연차보수팀) 한기원(4급.공부부 설계3과)→프로젝트기술부문 최용훈(2급.공부부 자체관리과장)→Site Preparation부문 고통해(5급.회계팀)→RUC관리팀

6.10 정갑영(2급.장치부 장치과장)→공부부 자체관리과장 박주용(3급.장치부 장치과)→장치부 장치과장 강신훈(3급.장치부 예방정비과)→장치부 기계1

과장 서철진(2급.계전부 계기2과장)→계전부 전기과장 이준희(4급.계전부 예방정비2과)→계전부 계기2과장(대행) 이성목(5급.공부부 설계2과)→연차보수팀 이진우(5급.장치부 장치과)→연차보수팀 박창은(5급.석유화학공정팀)→석유화학공정팀(Aromatics생산공장 파견) 이창상(2급.에너지기술/관리팀)→기술교육팀 박평수(대리.안전관리팀)→안전보건부 안전과

6.23 석성호(2급.인력개발팀 부)→석유화학제품팀 안전수(4급.용선팀)→원유팀 유영준(5급.석유화학운영팀)→용선팀 박성수(5급.석유화학마케팅전략팀)→석유화학운영팀

7.1 김상경(2급.구매팀) 박철우(전문차장.구매팀) 박태우(5급.구매팀) 이용휴(일반사무직1급.구매팀) 정순영(일반사무직2급.구매팀)→구매관리팀이석필(3급.부산지사 판매담당)→동부영업지원팀 최동호(3급.동부영업지원팀)→부산지사(판매담당) 최무기(2급.업무부 총무과장)→업무부 총무과 류진열(2급.인사후생부 인사과)→업무부 총무과장 서형희(4급.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장(대행) 김영근(분해3부 정유3과 교대계장)→분해3부 정유3과 박성배(분해3부 정유3과)→분해3부 정유3과 교대계장 최광호(장치부 장치과 선임계장)→장치부 장치과 이광준(장치부 장치과)→장치부 장치과 선임계장

해외유학 파견

6.18 권석준(4급.지금운영팀)→인력개발팀 부(휴직)

정년퇴직

6.30 정연구(대리.인천저유소 운영담당)

퇴직

6.18 송영현(5급.계전부 예방정비2과)
6.26 박재호(대리.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
6.30 박성호(3급.프로젝트기술부서)

부음

6.3 이민영(계기2과) 조부
6.8 손봉기(준법지원인) 부친
6.9 이동훈(인천저유소) 조모
6.21 박성진(영업전략팀) 부친
6.26 김진영(정유1과) 모친
 윤종은(인천저유소) 모친
 이주형(연료연구부) 부친
6.29 고광호(수송팀 배차센터) 빙모
7.1 노지권(HOU혁신1과) 조부
7.3 황두환(수송팀 배차센터) 모친

결혼

7.6 원경수(동력3과)
7.12 이수연(대외업무팀)
 이성희(자체관리과) 아들

9 Corporate Initiatives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 달성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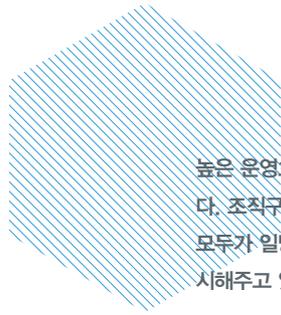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최고의 실력이 높은 업무효율의 비결입니다

검사부





높은 운영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 조직의 구성과 운영시스템, 구성원의 능력 등이다. 조직구성과 운영시스템에 관해서는 최근의 조직개편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에 더해 부서원 모두가 일당백임을 자신하는 부서, 개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애쓰는 검사부가 또 다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온산공장의 핏줄과도 같은
배관이 온전히
유지·관리 되어야
공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온산공장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당발 검사부

검사부는 온산공장 생산활동의 효율성과 설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부서다. 송유관 등의 배관과 반응기, 드럼, 탱크, 보일러와 같은 고정기계장치의 검사가 주된 업무다. 말로만 해서 검사의 범위와 규모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온산공장 전체를 상상해 보면 된다. 뿐만 아니다. 해상설비에서 해저배관을 따라 공장까지 원유와 제품이 이동하는 걸 감안하면 그 범위는 공장을 넘어 부두에까지 이른다.

“배관은 온산공장의 핏줄과도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송유가 잘 되어야 온산공장은 온전히 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검사부 이치성 부장은 22년간 몸담은 검사부를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소개했다. 지상과 지하

에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배관은 공장의 장관을 연출하는데 한 몫 한다. 겉보기로만 그런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그렇다.

정기보수 검사, 운전 중 장치와 배관 설비에 대한 완벽한 검사를 수행하고 최적의 보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검사부는 생산 부문, 정비 부문과 협력한다. 세 부분의 협력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의 기본 바탕이 된다. 부서원은 공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부서는 타 부서와 협력하는, 마당발 그 자체다.

설비관리와 품질관리의 기본은 자기계발

검사부에서 행하는 검사는 크게 운전 중 검사(OSI)와 정기보수(TA)로 나뉜다. 실행하는 방법에 따라 하위 검사법은 세분화되는데, 검사방법에 따라 투입되는 장비와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육안검사만 해도 실제 육안으로만 하는 방법, 내시경을 통한 방법, 망원경을 통한 방법이 있다. 때로는 열화상카메라가 사용되기도 하고 초음파,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 투과장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되는 검사방법이 많은 만큼 부서원이 알아야 할 정보와 기술도 많다. 각종 비파괴 검사방법이 새로 개발되기도 한다. 시설은 끊임없이 증설되기 때문에 관리영역도 계속 늘어난다. 검사부원들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다. 그래서 검사부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권장한다.

“부서 내에서 검사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파괴검사 자격 등 검사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특히 7년 이상 근무한 부서원에게는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규정해 요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외부 전문업체가 제대로 검사했는지 관리할 수 있죠. 우리가 일당백을

“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

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자신감으로 총만하다. 검사부의 자신있는 업무추진으로 넓은 온산공장이 오늘도 고른 맥박으로 운전되고 있다. 



MINI INTERVIEW

검사부의 강점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와 비교해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넓은 온산공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여러 설비를 검사하는 데 비하면 그리 큰 규모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원들 모두 업무효율을 최대한할 수 있을만큼 출중한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믿고 함께 하나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한 마디

검사부는 안전과 직결된 곳입니다. 작은 스파크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무장이 철저해야 합니다. 원칙과 신념의 두 축이 균형을 이루도록 스스로를 다잡아야 하고요. 익숙해지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잘못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문가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든 상황을 맞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부 이치성 부장



검사과 오정대 차장

가족과 같은 검사부원에게

검사부는 2인 1조로 행동합니다. 검사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혼자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검사를 하더라도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배와 후배가 한 조가 되어 선배는 후배를 이끌고 후배는 선배의 경험을 물려받습니다.

후배 중에는 주니어라고 불리는 신입들도 있습니다. 나이 든 선배들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게 흠이 되진 않습니다. 선배들을 잘 따릅니다. 주니어들이 번개팅을 종종 하는데 함께 어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율 속에 잘 조화를 이뤄 가족 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검사과 진용인 과장

실력으로 말하는 부서원들을 위해

검사1과를 포함한 다른 부서와 견주어 봐도 검사2과는 나이에 분포가 고른 편입니다. 검사2과는 활기가 넘칩니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에 6개월간 사우디에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엔지니어들을 보고 든 생각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실력은 다른 어느 나라의 엔지니어보다 뛰어나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의 실력을 PR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침 우리 부서는 자격증 취득을 매우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공인 받고 더 당당하게 활약해주었으면 합니다.



잊지 못할 경험

사우디 인턴사원 교육

글 Abdulaziz Mohammed Al-Saif

자료제공 윤원섭(기획분석팀)

우리회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사우디 학생을 대상으로 3월에서 6월 까지 16주간 인턴교육을 진행했다. 정유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 및 당사 공정 및 사업영역, 기획분석팀 R&R 교육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였다.

지난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하면서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단 몇 줄로 요약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울산 대학교 교환학생인 저에게 있어서 S-OIL과 같은 대기업 인턴이 되는 것은 제 목표 중 하나였으며, 지금 이렇게 무사히 인턴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분석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Major 석유 회사 분석, 석유 및 비즈니스 관련 독후감 작성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완수했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협업을 하고 교류하면서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매일 점심시간 직후 아랍어와 아랍문화에 대해 강의하면서, 팀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의 인턴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팀원들과 쌓은 우정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Abdulaziz Mohammed Al-Saif 학생은 2014년 3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15주간 기획분석팀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정유산업 전반, 당사 공정 및 사업영역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다.

인생 후배로 대해준 멘토께 감사합니다

멘토링 활동

글 권성우(촉매연구팀) · 박준모(안전관리팀)

자료제공 김우춘(기술교육팀)

우리회사는 신입사원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생활의 선배로 만나서 인생 선후배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두 멘티가 소감을 보내왔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의 멘토링을 정건희 과장님과 이 제찬 대리님 두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회사 경험담과 공통 취미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회사 적응과 직장동료 간의 친목을 쌓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6개월 간 이제찬 멘토와는 빠른 부서 적응과 부서 내 동료들 간의 친목쌓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멘토링 목표에 맞게 퇴근 후 부서원들과 풋살, 볼링 경기를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는 멘토와 저녁식사를 하며 회사 경험담 및 개인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서 업무와 회사 문화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정건희 멘토와 '홈베이킹'을 주제로 멘토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통된 취미였던만큼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멘토링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정건희 과장님은 타 부서원과의 친목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6월에 목표했던 케익을 만들며 1년간의 멘토링 활동은 끝이 났지만 회사 생활에 있어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권성우(촉매연구팀)

입사 후 처음 부서배치를 받고, 회사생활이 무엇인지 한창 배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 멘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매일 선배님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가진 치맥조차 어색했었죠. 그러나 멘토링 횟수가 거듭될수록 업무 이야기 외에도 조금씩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와 단 둘이 영화를 보고, 축구를 보러가는 기회가 어디 자주 있을까요! 회사생활 동안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낯선 회사생활 속에서 제 마음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 저와 시간을 보내느라 고생하신 멘토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함께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준 멘토링 프로그램.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고맙습니다!

멘토링 끝난 기념으로 비공식 멘토링으로 치맥 한 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

박준모(안전관리팀)



아들에게 선물한 여행의 행운

아들 도훈이와 단둘이 떠난 1박2일 계룡산행

권범진 연료연구팀

여행에서

발견하는

행복 중

하나

동행자의

새로운

모습이다.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은 일이 생겨 즐거운 게 있다. 바로 여행이다. 작년에 둘째 녀석과 국내 1박2일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차로 2~3시간이면 갈 거리를 대중교통과 두 다리로 하루 종일 다니며 돌만의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여행. 과정이 즐거웠던 그때를 떠올리며 올해도 또 한 번 사고를 치기로 했다. 작년은 해인사, 올해는 강도를 넘어 계룡산!

현충일 새벽, 12살짜리 아들 녀석과 나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KTX로 대전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고 계룡산 길목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 들었다. 거기서 발견한 볼링장. 도보여행의 재미가 아무 데서나 재밌는 걸 보면 가던 걸음을 멈춘다는 건데, 우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나는 거의 20년 만에, 아들 도훈이는 처음으로 볼링공을 만졌

다. 내가 굴린 공은 좌우 고랑으로 빠지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내가 이겼다.

교통 정리하는 분이 동학사 가는 '잘못된 길'을 친~절히 알려주었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현충원에 가서 동학사행 107번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하지만 버스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급기야 시청 교통과로 전화하니 현충원 앞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우회토록 노선 조정이 되었다. 우짜~

그런데 그곳이 호그와트마법학교로 가는 9와 3/4 승강장이었을까? 정류장에 표시되지 않은 번호의 시내버스가 한 대 왔고 우리는 동학사 근처까지 갈 수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느 노부부가 택시 합승을 제안했다. 택시를 타고 동학사 입구까지 간 우리는 늦지 않게 산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동학사와 남매탑을 거쳐 감사로 가는 4시간의 산행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산행은 무모했다. 얼마나 무모했느냐? 일반 운동화를 신고 간 것! 이들은 산행을 가볍게 보고 연신 '이건 배낭여행이 아니다'라는 등 '다음엔 산에 가지 말자'는 등 하다가 이내 가쁜 숨을 쉬었다.

신라시대 한 스님이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호랑이는 그 스님을 한 여인에게 데려갔고 스님과 여인이 의남매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7층과 5층 남매탑을 보고 다시 감사로 걸음을 옮겼다. 며칠 전까지 비가 와서 계곡물이 세차지만 우리는 중간중간 물에 발을 담가 식혀가며 산행을 계속했다. 삼불봉을 지나 감사가 가까워지는데도 산세는 수그러들 줄 몰랐다. 역시 계룡산이라는 감탄사가 나왔다. 감사 뒤뜰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쭈그리고 앉아 클로버가 옹기종기 나있는 곳을 뒤적였다. 찾았다, 네잎 클로버. "너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라며 아들에게 건넸다. 산행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준 순간이었다.

숙소는 민박집이었다. 우리는 준비해간 버너와 코펠로 라면과 밥을 해먹었고, 공기놀이, 카드를 하며 저녁시간을 보냈다. 숙소에는 우리 말고도 반란(?)여행을 온 50대 아줌마 5명, 혼자 산행에 나선 중년의 아저씨가 함께 묵었다. 서로 준비해간 음식을 주고받다 보니 '여행의 묘미가 이런 것'이란 걸 느꼈다.

다음날 버스를 타고 대전 시내로 들어와서도 우리는 호기심 많은 소년처럼 길거리를 구경했다. 비비탄 사격, 인형뽑기를 했고, 대전에서 유명하다는 튀김소보루와 부추빵도 사먹었다. 짧은 1박2일의 여행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또 가고 싶다." 🌻



4



5

1. 아들에게 네잎클로버를 선물하면서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어줬다.
2. 여행의 식사는 간편함이 최고! 전투식량으로 한 끼를 해결했다.
3. 닭은골 부지는 옷을 때 가장 닭아 보인다.
4. 여행의 재미 중 하나는 식도락 아닌가! 대전에서 유명하다는 빵을 사먹었다.
5. "숨은 멈추고 천천히... 3, 2, 1. 발사"





역사 속 위대한 고구려를 만나다

아빠와 함께한 고구려 유적지와 백두산행

김찬웅 환경관리팀 김대규 사우 아들 · 부산 부흥초6

중국땅에서

발견한

우리의

역사를

보고 나니

꿈이

더욱

커집니다.



올봄, 나는 방과후 역사반에 들어갔다. 수업을 들으며 ‘저기에 가면 정말로 중국 중원을 장악한 광개토태왕비가 있을까?’, ‘고구려의 수도 졸본성은 어떻게 생겼고 국내성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에게 고구려 유적지를 여행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는 6월 연휴 일정으로 고구려 유적지와 백두산을 함께 하는 여행을 잡아주셨다.

인천공항 집결이 오전 7시 10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날 심야 우등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것이 여행 기간 내내 지속될 긴 버스 여정의 시작이었을 줄은...

우리는 무역과 관광이 발달한 요동반도 최남단의 해안도시 중국 대련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 첫날,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해 장백-집안-단동을 거쳐 황해로 들어가는 민족의 강 압록강에서 유람선에 탑승해 역사책에서만 봤던 위화도, 월량도를 가까이서 봤다. 거기서는 압록강 건너 북한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는데, 힘겹게 사는 북한 주민들의 보습에 마음이 아팠다. 둘째 날, 우리는 중국 북부 요령성에 위치한 만주족 자치구 환인현으로 향했다. 이 도시의 지명도를 크게 높인 것은 오녀산성으로 현재까지 성벽과 성돌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어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재되었다. B.C. 37년 북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이 정착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성의 터로 추정된다.

셋째 날엔 10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향했다. 백두산 등산코스는 언덕을 따라 끝없이 하늘로 이어지는 듯한 1천200여 개의 얇은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 행운이 따라 날씨가 맑아야만 볼 수 있는 백두산 천지. 어른들은 버스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기도도 했다. 나 역시 날씨가 좋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백두산에 오르면 만년 동안 녹지 않았다는 만년설을 보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다. 이윽고 정상에 오르는 순간, 나는 TV에서만 보았던 천지를 실제로 보고 감동했다. 중국과 북한으로 경계가 나뉘어진 백두산. 한 발짝 더 가면 북한땅이라는 가이드 설명에 혹시 실수로라도 북한에 넘

어가는 것은 아닐까 겁도 났다! ㅋㅋ 통일이 되면 눈치 보지 않고 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우리는 하산했다. 우리는 백두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금강대협곡의 원시삼림 사이에 난 산책로를 걸으며 삼림욕을 즐겼다. 아빠는 처음 맡아 보는 정말 깨끗한 공기라 하셨는데 내가 느끼기에도 참 신선했다.

넷째 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광개토태왕비를 보기 위해 집안시로 향했다. 집안시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국내성의 현재 지명으로 길림성 동남쪽에 위치한다. A.D 3년경 고구려 유리왕이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는데 고구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424년 간) 수도 역할을 하며 번성기를 누린 만큼 광개토태왕비, 태왕릉, 장군총 등 1만여 개의 고분과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광개토태왕비는 정말 웅장해 보였다. 이곳이 과거에는 고구려 땅이었는데... 안내문에는 한글로 고구려와 광개토태왕의 역사가 중국의 것으로 소개되어 있어 가슴 아팠다. 현재 중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가이드 설명에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우리나라가 더 큰 힘을 가진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박5일의 일정 중 버스만 총 48시간가량 탔다. 정말 중국땅은 넓다고 느꼈다. 이 넓은 땅을 과거 고구려의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 누볐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하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1.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소원대로 우리는 백두산 천지를 보았다.
2. 무역과 관광이 발달한 대련에는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았다.
3. 언덕 끝 백두산은 마치 하늘과 닿아있는 듯 했다.
4. 장군총 앞에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눔의 보람으로 하루가 짧은 '햇살나눔'입니다

2014년 6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1년 중 낮이 가장 긴 6월, 햇살나눔봉사단이 긴 하루해만큼 푸근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너른 야외에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함께 걷다 보니, 함께 하며 나누는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가족사진촬영봉사팀

봉사팀은 담도폐쇄증 환자 유재건 가족과 나들이 겸 사진촬영을 가졌다. 곡성군에는 베이비 셀프 스튜디오가 없어 야외에서 촬영했다.



분해3부

봉사단은 해밀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울산 장미원에 함께 갔다. 만발한 장미 속에서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업무팀·환경팀

구세군안산다문화센터를 찾아가 봉사팀은 음식조리와 야외급식 등 급식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생활환경을 체험했다.



수송팀

봉사팀은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이화어린이집을 찾아가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방충망을 비롯 어린이집 시설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Aromatics생산2부

울산참사랑의집을 찾은 봉사단은 삼색 고구마 경단 만들기 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7



계전부

봉사단은 우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어린이 동행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네 번째 프로그램인 '먹기' 시간을 함께 했다.

21



분해2부

봉사단은 시각장애인과 울산대공원을 찾아가 두 사람이 발을 맞춰 가는 자전거인 텐덤자전거를 타며 마음을 나누었다.



분해2부

울산시각여성회 시각장애인 동행 활동을 펼친 봉사단은 친환경농장에서 토마토 및 오이따기체험을 했다.

26



달콤한 토요일 다문화이웃과 함께해요

홀트아동복지회 다문화쿂�클래스

글 백연경(총무팀)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문화가정은 아직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당당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각국의 요리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6월 21일 쿳킹스튜디오 호야콥스에서 가졌다.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본사 정기봉사팀이 아주 특별한 교실에 참가한다. 다문화가정의 엄마와 아이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모여 다문화 요리를 만들어보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달콤한 토요일' 쿳킹클래스가 우리 회사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까지 지속되는 다문화 쿳킹클래스의 첫 수업이 지난 6월 21일에 쿳킹스튜디오인 호야콥스(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다문화가정 모자 30여 명이 참가해 깨소금 볶듯 정겨운 우애를 다졌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장애 아동, 저소득가정 아동, 해외 아동 등 아동 양육 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며 이웃과 따뜻한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쿳킹클래스가 마련됐다.

첫 요리교실의 주제는 '캐릭터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다. 엄마와 아들딸로 삼삼오오 짝지는 다문화가정 참가자들이 저마다 어여쁜 도시락을 만들어 나갔다. 초등학교 고사리손으로 지글지글 계란 지단을 부치고 꺾꺾 누른 주먹밥으로 도시락이 착착 채워지는 사이, 즐거운 수다와 깔깔 웃음에 요리교실은 동네 큰 잔치집이 됐다. '호빵맨'과 '기차'로 그림 같은 도시락을 만든 모자 참가자는 부러움 가득한 박수갈채를 받고 힘박웃음을 지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20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정을 이룬 이웃들이 이 땅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원에 발맞춰 햇살나눔봉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으면 한다. 

※ 본사 정기봉사팀 홀트아동복지회 참여 문의 : 총무팀 백연경 (#5051)



아이들의 수호천사로 거듭나세요

밝은웃음 찾아주기 캠페인 급여우수리 나눔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급여우수리 나눔의 일환으로 69번째 수혜자를 대상으로 7월 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월 급여의 1만 원 미만 금액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급여우수리 나눔. 적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우리회사는 2008년부터 임직원 급여우수리 나눔을 통해 희귀 난치질환 환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9년 4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담도폐쇄증 어린이를 위한 '밝은웃음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지원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이 가운데 급여우수리 나눔의 69번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비 전달식이 7월 1일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렸다. 이영호 팀리더 · 정순영 사무(구매관리팀)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장서는 아기와 가족을 만나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치료비 500만 원과 특수분유를 전달

했다. 올 4월에 태어난 서은이는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된 6월 11일 카사이 수술을 받았다. 담도폐쇄증의 1차적 수술인 카사이수술에는 약 400~500만 원이 필요하다.

올 7월 기준으로 현재 급여우수리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은 1천593명이다. 이들이 월 기본급 중 1만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회사 지정기탁금을 포함해 6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임직원 누구나 급여우수리 나눔에 동참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생명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 

※ 급여우수리 나눔 참여 문의 : 운영지원팀 신영철 (#5063)

담도폐쇄증이란?

원인을 알 수 없는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담즙이 흐르는 관인 간외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돼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간을 손상시키는 병이다. 최악의 경우 간경화로 진행돼 사망이 이를 수 있다.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사랑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시원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뜨거운 나눔을 시원하게 실천하는 햇살나눔 현장의 우리 모습이다.
보훈단체 이웃돕기 성금 전달, 중고의류 나눔 시범사업,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활동 등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울산복지재단 보훈단체 성금 전달

글 이수연(대외업무팀)



울산복지재단이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을 쾌척했다. 6월 24일 울산시장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김용연 전무는 김명규 울산복지재단이사, 김상만 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환 울산광역시장권한대행과 만나 5천7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관내 보훈단체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우리회사는 울산복지재단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설과 가정의달 5월, 추석에 이웃돕기 쌀 지원 일환으로 관내 불우이웃과 보훈단체 등에 백미를 전달해 왔다. 이로써 2007년부터 현재까지 53억 6천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유리상자’ 문화예술 & 나눔 공연

글 원유진(운영지원팀) 사진 전부순

촉촉한 감성으로 초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는 포크 듀오 유리상자(박승화·이세준)가 6월 26일에 본사 사옥(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앞 공항철도역 광장에서 열린 문화예술&나눔캠페인 공연 무대에 섰다. 예정시간인 저녁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현장에 준비한 600석이 지역주민과 인근 직장인들로 다 들어찼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라는 구절의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질 즈음에는 관객 1천여 명이 운집해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성 돌든’ 연주에 빠져들었다. 우리회사는 마포 사옥에 입주한 2011년부터 매달 무료공연을 개최해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굿월스토어’와 함께 하는 중고의류 나눔 시범사업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우리 직영주유소인 스카이주유소(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에 가면 눈에 띄는 수거함을 만날 수 있다. 귀여운 구도일 캐릭터가 그려진 ‘의류 기증함’은 우리회사가 사회적기업 ‘굿월스토어’와 손잡고 추진하는 중고의류 나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해 스카이주유소를 찾는 방문객은 누구나 현장에 설치된 함에 중고의류를 기증할 수 있다. 기증된 물품은 굿월스토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현장에서 주유 고객들에게 중고의류 나눔 시범사업 시행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5점 이상 기증하는 주유소 고객에게 무료세차권을 증정한다. 🌻



정품·정량으로 지키는 고객 향한 의리!

경북 안동 경안주유소

경안주유소는 어느 때 찾아도 믿음직한 주유소, 친근한 주유소다. 경안주유소 개업은 2008년 1월이지만 김호원 대표는 1987년부터 에스-오일 식구다. 세차하고 난 뒤 반짝반짝 빛나는 차량 덕분에 더욱 즐거운 경안주유소에 찾아가봤다.

▶ 김호원 대표(앞줄 왼쪽)와 직원들



김호원 대표

경안주유소를 소개한다면

오전 5시 반부터 익일 오전 0시 반까지 운영 하는 주유소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차서비스를 특화한 주유소로 겨울에도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따뜻한 물로 세차서비스를 계속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주요 고객으로 한 번 찾은 고객이 다시 찾는 믿음직한 주유소로 소문 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는

거창한 주유소가 아니라 꾸준한 주유소로 단골고객이 계속 찾는 주유소가 목표입니다. 지역의 이웃으로서 서로 인사하고 웃을 수 있는 주유소로 고객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올해 챔피언스 클럽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경안주유소는 특화된 세차서비스와 꾸준한 고객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개업 초창기부터 남과 다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근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 차에 흙이 잔뜩 묻어서 다니는 차량이 많았죠. 우리가 갈 길은 세차라고 판단했죠.”

세차기에서 세차를 마치고 반짝반짝 햇빛을 반사시키며 나오는 차량을 바라보는 김호원 대표는 마치 자기 차량을 보듯 한다. 다른 주유소보다도 훨씬 좋은 세차기를 사용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기계가 단축해 보이죠?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돈이 없어서 저런 세차기를 놓았느냐고요. 그럼 웃으면서 대답해요. 맞다고. 그런데 일단 세차는 한 번 해보시라고.”

일반 터널식 자동세차기에 익숙한 고객들이 더

비싸고 더 좋은 세차기를 알아보주지 않는 게 속상하기도 할 텐데, 좋은 건 역시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김호원 대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기계뿐만 아니라 세제와 왁스 역시 최고급품만을 사용한다. 대신 1천 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료 지불에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 뒤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세차에 취약한 겨울에도 경안주유소에서는 따뜻한 물로 세차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용료는 좋은 세차에 대한 팁에 가깝다.

◆ 믿음과 소통, 직접 행거요

“들어오는 차량을 보세요. 거의 승용차입니다. 대형차량이 없다시피 해요. 그렇지만 단골이 많습니다. 크게 한 방 터뜨리기보다 꾸준히 믿음으로 가는 게 성격에 맞아요.”

경안주유소에 가면 언제라도 김호원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직원에게 주유소를 맡기고 외부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한 번, 청소 한 구역이라도 직접 하는 것. 이런 태도는 고객을 대할 때에도 직원을 대할 때에도 소통으로 이어진다. 늘 주유소에 있으면서도 직원을 뽑을 때엔 직원 중 최고참인 소장에게 맡긴다.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일해야 업무가 원활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소장은 공무원 출신이라서인지 시간관념도 업무태도도 철두철미하다. “고객과 대화해야 해요. 억지로 말을 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말을 할 땐 질문이거나 불만사항이거든요. 이 때 성심성의껏 응답해야 합니다. 반문은 하지 않아요. 반문한다는 건 모르기 때문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예요. 잘못했으면 사죄를 해야지요. 솔직함과 성의로 지금껏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객과의 대화가 단골고객이 늘어난 이유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아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또 만날 때마다 반가워지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채스든 과일이든 사먹을 일이 없어요. 이웃들이 주유소 들를 때 주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안주인이 한 마디 거든다.

◆ 꾸준하기에 받을 수 있었던 챔피언스 클럽 최우수상

“챔피언스 클럽 최우수상 수상은 직원들이 함께 해줘 가능했어요. 저는 사장이라기보다 매니저입니다.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어지도록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하죠.”

밖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고된 일을 하는 직원들보다 편하게 있을 수 없어 사무실 에어컨도 켜지 않는다. 대신 점심시간 1시간 전부터는 켜놓는다고. 함께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당한 에스-오일 식구예요. 1987년부터 에스-오일 파트너로 지내면서 유사기름은 물론 다른 정유회사 기름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수송부터 시작해서 소위 석유집이라고 하는 석유판매소를 거쳐 지금은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이 동안 에스-오일하고만 거래했어요. 석유 판매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다들 조금씩 있을 거예요. 아무 거나 싼 기름 받아다가 판매한다는 인식 말이죠. 그 때도 에스-오일 기름만 받았으니 말 다했지요.”

챔피언스 클럽의 영예로 빛나는 경안주유소가 더 믿음직한 건 이런 꾸준함 때문이다. 



안동 안기동의 우성아파트와 안기동복지회관 사이, 안동에서 영주로 가는 구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다. 정품정량은 기본, 세차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꾸준한 고객소통과 믿음으로 한 번 찾으면 꼭 다시 찾게 된다.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224(안기동 92-33)
☎ 054)842-0051



서로 의지하는 우리는
영원한 한 팀

검사2과 박종욱 사우 가족

지역연고도 없고 회사 동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부산 기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박종욱 사우 가족. 박종욱 사우는 단란한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지면을 보고 아내를 생각하며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사보 편집실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레스토랑에 키가 커다란 박종욱 사위가 혼자 들어섰다. 가족 이벤트인데 혼자 나타난 그는 아기가 차에서 잠들었다고 했다. 이윽고 아내 김소현 씨와 아들 온유가 실내로 들어섰다. 방금 잠에서 깬 듯한 9개월 된 아기 온유는 낯선 곳임에도 울지 않았다. 주변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동그랗게 뜯 눈으로 좇는 아기가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연고가 다 서울이에요. 친가도, 처가도. 그런데도 먼 부산 기장까지 내려와 함께 해주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박종욱 사우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벤트로 표현하고 싶었다.

아내에겐 남편만, 남편에겐 아내만 보여요

부부의 표정이 유난히 밝다. 결혼한 지 약 2년이 되는 신혼부부여서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란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11년 전이에요. 대학연합 연극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만났어요. 제가 한 학번 위 선배, 신랑이 후배.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애 같아 보이기만 했는데요. 5년 전이지요. 신랑이 군대에서 전역하고 제가 미국 연수를 마치고 와서는 ‘뽕!’ 연애를 시작했어요.”

박종욱 사위와 아내 김소현 씨는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열렬히 사랑한 기억밖에는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눈병이 날 정도였다. 박종욱 사위가 학업을 계속 이어가던 시절에 데이트비용은 주로 아내분이 냈다는 귀띔.

결혼과 동시에 박종욱 사위가 에스-오일에 입사했다. 그리고 연수에 알게 된 임진 사실. 원래 계획은 1년 정도는 서울 친정과 시댁 근처에서 아기를 키우다가 공장 쪽으로 내려올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과 울산에서 각자 지내는 주말부부 생활이 그렇게 눈물겨울 수 없었다고 말한다. 만삭의 몸으로 친정에 있을 때도 아내는 남편 생각만 났다.



“
백점 남편,
만점 아내,
둘도 없는
우리 온유가 있어
행복해요.”
”





“
핸드폰 속 만 장이 넘는
아기 사진은
언제 봐도 웃음만 나오.”

“임신 8개월째 만삭일 때였어요. 친정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신랑이 옆에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주저 없이 이사를 결심했죠.”

지금은 아파트 엄마들과 많이 친해졌지만 처음 내려올 당시만 해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만스럽거나 불안한 감정이 들지 않은 건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방패막이 되어줄래요

재미난 것, 유쾌한 것을 좋아해서 항상 행복 에너지가 넘친다는 이 가족.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족 중심이라고 말한다.

“내가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나 한참 고민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해 봐도 없네요. 애교 많죠, 사교성 좋죠, 결단력과 추진력까지.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심지어 요리도 잘 해요. 전 정말 행운아예요. 만점 아내입니다.”

박종욱 사우는 아내자랑이 넘친다. 넓은 창 앞으로 그보다 더 넓은 바다를 펼쳐두고도 이 남자의 시선은 아내와 아기를 향해 있다.

“좋아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가끔은 이 사람이 직장 일은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저와 온유 모두 적응 마쳤으니 우리 걱정은 좀 덜 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웃음)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몸을 아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웃음이 넘치는 유쾌한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밝은 표정의 아내는 본인이 오히려 더 잘 적응한 것 같으며 남편을 걱정했다. 핸드폰 속에 만 장이 넘게 찍은 사진이 있다는 아내는 또 몇 장의 사진을 찍는다.

‘일상이 이벤트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세 식구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이벤트다. 아기가 좀 더 자라면 지인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 볼 계획이다. 돌발상황이 많을지도 모를 캠핑이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내 옆이든 내 뒤에든 서 있어줄 것을 믿는다. 

타지에서든 고향에서처럼 씩씩직한 아내와 아이에게...

항상 자신보다도 나와 온유를 위해 주는 속 싶은 내 사랑.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도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 고마운 마음뿐이야. 사랑스런 우리 아가 온유야.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한 아빠란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랐으면 좋겠어. 우리 식구 앞으로도 하루하루 더 행복한 날들로 채워가자. 사랑해♡

힘이 되어 주는 남편과 아이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하다고. 여보랑 온유 두 남자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주기 때문이야. 우리 셋 푹푹 뭉쳐서 앞으로도 더 많이 아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존재가 되어 주자. 사랑하고, 건강하자!!!

지켜봐주시는 양가 부모님께

철부지 같던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지켜봐주세요. 멀리 있어서 자주 뵙 수는 없지만 저희 가족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찾아 뵙게요.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중국에서 돌아온 딸아, 니하오~!

당당하게 배운 걸 말할 수 있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은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네요.
어서 와, 뉘얼(딸아).



작년 여름,
북경에 있는 인민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갔던 딸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한결 더 어른스러워졌네요.
함께 공부했던 태국 친구가 놀러 왔는데
경주를 구경시켜주면서 민간외교관 역할도 했어요.
중국어로 하루 종일 재질재질 대화하는 둘~.
중국어에 자신감이 붙은 딸을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겠죠!
사랑해 딸~♡ S



서동의 꿈과 비밀을 좇는 아름다운 여정

익산 둘레길 3코스 '무왕길'

전라북도 익산에는 근초고왕 이후 쇠락한 백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던 통치자이자 적국 신라의 공주를 연모한 로맨스의 주인공 '서동'의 체취가 스며있는 '무왕길'이 있다. 서동은 백제 30대 임금으로 서기 600년에 즉위하여 신라와 맞은 충돌을 빚으면서도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일시적이거나 사비(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를 감행한 무왕(武王)이다. 1천300년 역사를 품은 신비롭고 낭만적인 무왕길은 익산둘레길 3코스로 무왕 탄생부터 사랑의 결실과 영면까지 관통한다. 고도 익산에 가득한 마한과 백제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오래고도 새로운 길을 천천히 나서보자.

무왕길 1코스

왕궁리 유적전시관→고도리 석불입상→마룡지(서동 생가터)→익산쌍릉→익산토성→미륵사지→구룡마을 대나무숲→서동공원→왕궁리 유적전시관

▶ 총 18.4Km, 7시간 30분 소요

왕궁리유적전시관(사적 제408호)에서 첫발을 땀다. '왕궁리성지'로 잘 알려진 이곳 5층석탑(국보 제289호) 주변 구룡지를 중심으로 직사각형의 평지성이 발견되어 백제 후기 익산 천도설과 별도설을 뒷받침한다. 왕궁리유적전시관은 왕궁리유적, 왕궁 생활, 왕궁에서 사찰로 변화 등으로 구분하고, 금·유리제품과 왕궁에 쓰인 연화문 수막새, 수부명 인장기와, 토기, 사찰에 사용한 기와류, 금·유리제품을 만들던 도가니를 전시한다.

전시관을 나와 1번 국도 우측을 따라 내려가다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건너면 옥룡천변 들판에 고도리 석불입상(보물 제46호) 두기가 동서로 약 200m 거리를 두고 마주 서 있다. 높이 4.24m의 화강석 석불입상은 머리에 관을 얹었고 가늘게 뜬 눈과 작은 코, 가느다란 입술이 인상적인 사각형 얼굴이다. 도포 같은 옷을 걸치고 높이 쌓은 흙더미 위에서 있는 모습은 마을을 수호하는 토속적인 석상처럼 낯설지 않다.

철종 9년(1858년)에 익산군수로 부임한 황종석이 넘어져 방치된 석상을 다시 세우고 "금마는 동·





1. 무왕길에는 궁성과 사찰·성곽·왕릉이 집중되어 백제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진은 익산토성에서 미륵사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손의 모습이다.
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들판에 옥룡천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 보며 서 있는 두 기의 석불입상. 마을을 수호하는 토속적인 석상처럼 낯설지 않다.
3. 왕궁리성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 왕궁리유적전시관. 익산둘레길 3코스이자 무왕길 1구간의 출발지다.

서·북 3면이 모두 산으로 가로막힌 대신 유독 남쪽만 터져 있어 물이 다 흘러나가 허허하여 읍수문의 허함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적은 '군남 석불 중건기'란 비문을 남겼다. 금마의 주산인 금마산은 말처럼 생겼기에 말에게는 마부가 있어야 하므로 마부 대신 석상을 세웠단다.

서쪽이 남자, 동쪽이 여자인 두 석상 사이로 옥룡천이 흐르기 때문에 평시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음력 설달 그믐날 밤 자정, 냇물이 꿈꿨어붙으면 두 석상이 건너와 못다 한 회포를 풀고 새벽닭이 울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전설이 전한다. 풍수적인 뜻이 담긴 불상이기에 못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리를 떠나 옥룡천변 들판을 따라 서동생가터로 향한다.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부여) 남쪽 못가에 살았는데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서동으로 재주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어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으므로 사람들은 서동이라 이름 지었다. - 삼국유사 무왕조 -

정오의 햇살이 온몸을 따갑게 파고들지만 시원한 바람을 솔솔 안고 모내기 마친 푸릇푸릇한 들판을 바라보며 걷는 발걸음이 상상하다. 큰 도릿가에 달

자 시내 방향 200m쯤에 '서동생가터' 입간판이 보인다. 삼국유사에 전설의 중심지로 기록된 이곳이 연잎으로 가득 찬 연못, 신비한 기운을 뿜어내는 마룡지로 무왕이 살던 곳이다. 법왕(29대)은 왕통을 이을 적자가 없어 마한의 여인을 맞이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후에 왕이 되는 무왕이다. 후궁 또는 시녀로 추정되는 무왕의 어머니가 연못 속의 용과 교합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의적이다. 핏줄을 숨기고 산에서 마를 캐며 살던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서라벌(경주)로 간다. 동리 아이들에게 마를 건네주며 노래를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4구체 향가 '서동요'로 국경을 초월해 유명세를 떨쳤던 삼국시대 러브스토리의 완결판이다.

‘선화공주님은
(善化公主主隱)

남몰래 정을 통하고
(他密只嫁良置古)

서동 서방님을
(薯童房乙)

밤에 몰래 안고 간다
(夜矣卯乙抱遣去如)

- 서동요 -

고대인들은 노래를 무척이나 신성하게 여겼다. 신과 인간이 서로의 뜻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생각했기에 여론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택했고, 노래는 여론을 오도한다는 것까지 계산한 건 아닐까. 따라서 서동요는 아이들 입을 빌려 의도한 결과를 도출한 주술성을 띤 노래이자 평민 남자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신분상승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참요였다.

익산 시내로 들어가는 720번 지방도로를 따라다 에쓰오일 대동주유소 옆길로 오르면 익산쌍릉(사적 제87호)이 단아한 모습으로 길손을 마중한다. 북쪽 대왕릉과 남쪽에 위치한 소왕릉은 한적한 소나무 오솔길로 연결되는데, 마한의 무강왕과 그 왕비의 능이라는 설과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이라는 설이 함께 전한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북쪽 큰 무덤을 '말통대왕릉'이라 부른다. '말통'은 어릴 때 서동 이름인 '마동'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1917년 일인학자가 발굴·조사한 바로는 원형 봉토 주위에 호석을 두른 흔적과 내부에는 석실이 있어 부여의 능산리 굴식 돌방무덤과 같은 판석제 굴식 돌방무덤으로 판명됐다. 이는 7세기의 전형적인 백제 무덤양식이라 미륵사지 창건과 왕궁평성을 조성한 무왕과 선화비의 무덤이 맞다는 게 중론이다. 표지판을 따라 오금산 산길로 들어서니 얼마 안 있어 익산토성(사적 제92호)에 닿는다. 둘레 714m.

동서로 뻗은 100m 내외의 산등성이에 흙과 돌을 쌓은 테머리식 토성이다. 성내에는 남문지·수구지·건물지가 남아있다. 서동은 여기에서 마을 캐어 오금(五金)을 얻었다 해서 오금산성이라 했고,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670년 6월 금마제(金馬濟=익산)에 보덕국을 세우고 고구려 귀족 안승을 왕으로 봉했다 해서 보덕성으로도 불린다. 1980년과 1984년, 조사에 따르면 다뉴세문경과 세형동검 등 청동제 유물과 백제 말기~고려시대의 생활 용기와 제기가 출토됐다. 특히 명문과 그림이 새겨진 기와는 군사적 목적 외에 토속신앙과 밀접했음을 시사한다.

하루는 왕(武王)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못 가운데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왕비가 말했다. “이 곳에 큰절을 세워야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왕은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못을 메울 일을 묻자 법사는 또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었다. 이에 미륵삼존상을 본떠 만들고 전과 탑과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운 뒤 미륵사(彌勒寺)라 했다. 진평왕은 여러 공인을 보내 역사를 도왔고, 그 절은 지금도 현존한다.

— 삼국유사 ‘무왕조’ —

임도와 숲길, 마을 고샅길을 돌아 나오면 동양최대 가람,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를 만난다. 미륵이 하생하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불력으로 외세를 막기 위해 금마면 용화산 남쪽 기슭에 미륵사를 세워 백제가 망할 때까지 왕실사찰을 담당한



4. 걷는 것만 7시간 이상 걸리는 무왕길은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과 체력에 맞도록 자신만의 답사 코스를 만드는 것도 좋다. 사진은 미륵사지에서 구룡마을 구간의 숲길이다.
5. 구룡마을 대나무숲에 들어가면 가슴에 스미는 은은한 죽향이 덧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초록 햇살과 어우러져 투명한 공기를 가르고, 덧잎 스치는 서늘한 바람은 사각사각 밟히는 발자국 소리와 같이 적막함을 일깨운다.
6. 신비한 기운을 뿜어내는 연잎으로 꽉 찬 연못은 삼국유사에 전설의 중심지로 기록된 마룡지이고, 그 건너편 숲이 무왕이 살던 마동 생가터다.

호국사찰이다. 1974~1975년 동탑지 부근을 조사하던 중 서탑과 같은 규모의 석탑지를 확인한 이후, 1980년부터 대대적인 발굴을 통해 동탑과 서탑, 그 중간에 목탑이 있었고, 각 탑 북쪽에 금당한 채씩 세웠음이 확인됐다. 탑과 금당을 구분하는 회랑 즉, 동쪽=동원, 서쪽=서원, 중앙=중원이라는 3원1가람 형태로 밝혀지면서 1910년 일본인들이 주장한 ‘품자형 가람배치’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가람’이란 승가람매(僧伽藍摩)의 준말로 여러 승려가 한데 모여 살면서 불도를 닦는다는 의미인데, 미륵사지 가람배치는 새로운 형식의 특수형태라서 학계와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흙으로 메운 연못에 자리했음이 밝혀져 삼국유사 기록이 옳았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공 안에 금제사리장엄구와 미륵사 창건 내력이 적힌 공판, 즉, ‘서기 639년 기해년 1월 29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받들어 석탑에 봉안한다’고 쓴 ‘금제사리봉안기’에 주목했다. 이것은 백제 왕후가 가람을 창건하고 탑을 조성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인데, 무왕의 왕후는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의 귀족가문 출신인 ‘사택지적’이었던 것. 선화공주 존재에 대한 의문은 있었으나 정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서동요 자체도 부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곳에 가람을 세운 이유는? 고구려에 밀려 한성에서 공주로, 또 부여로 쫓겨난 백제는 신라까지 코밑으로 다가오자 불안이 극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왕은 국론을 통일하고 모든 국력을 쏟아 부어 신라부터 쳐내려는 백제 부흥의 전초기지를 이곳으로 삼았다. 더욱이 황룡사로 대표





되는 신라 화엄사상에 맞서 백제 미륵신앙에 대한 믿음이 한없이 컸기 때문이다.

미륵사지를 떠나 전북과하고 뒤편 미륵산 기슭의 숲길로 들어선다. 구룡마을로 가는 구간(2.7km)은 숲이 울창하고 흙길이 포근해서 걷기는 마냥 좋다. 동네 한가운데에 우뚝 선 정자나무에서 다리 쉼 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미륵산자락에 있는 대나무숲이 저만치에 있다. 전체 면적이 5만㎡, 우리나라 왕대의 북방한계선이라 생태적인 가치가 높다. 누군가 죽세공품을 만들려고 심었고, 그렇게 만든 죽세품은 강경장을 통해 인근은 물론 충청도와 서울까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좋아 익산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에 떠밀려 방치된 것이 지금의 숲이 됐다. 2005년 겨울, 왕대가 병해를 입고 대부분 말라죽었다. 마을 주민과 전북 생명의 숲이 팔을 걷고 고사한 대나무를 제거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자 차츰 옛 모습으로 돌아왔다.

드라마 '추노'의 촬영지였다는 대숲 안으로 들어선다. 순간 이끼 묻은 벤치 한두 개가 전부인 투박한 모습에 실망이 컸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숙이 빠져든다. 땀뺀 스키는 바람과 사각사각 밟

히는 발자국 소리가 적막감을 깨고, 은은한 죽향 이 가슴에 스며든다. 땀까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초록 햇살이 고요하고 투명한 공기를 가른다. 예고 없는 길손의 기척에 놀랐는지 한 무리 멧새들이 비상한다. 오롯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실망감이 잦아들고 작은 욕심까지 비워낸다. 대숲을 돌아 나오는 길, '혼자보다는 동행이 아름답다'는 팻말의 뜻을 되새기면서 서동과 선화의 전설을 담은 서동공원으로 발길을 이어간다.

평일에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서동공원은 한반도를 닮은 금마저수지를 품고 서동과 선화의 입상, 십이지신상 등 조각품과 전망대, 시시각각 물색을 바꾸는 분수는 명물로 알려져 익산의 대표 나들이 장소이자 데이트코스 손꼽힌다.

무왕길은 단순히 걷는 것만 7시간 이상 걸리는 제법 긴 거리다. 관심 유적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과 체력에 맞는 자신만의 답사 코스를 만들어보자. 또 왕궁리 유적전시관과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매월 넷째 토요일 오전 9시, 백제 무왕 유적을 해설과 함께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매달 10~19일 사이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7. 소나무 오솔길로 고즈넉이 연결된 익산쌍릉은 7세기 전형적인 백제 무덤양식으로 미륵사지 창건과 왕궁평성을 조성한 무왕과 선화비의 무덤으로 알려졌다.
8. 왕대가 병해를 입어 상당수가 말라 죽었으나 마을 주민과 전북 생명의 숲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차츰 옛 모습으로 복원됐다. 왕대 죽순이 대지를 뚫고 오르고 있다.
9. 동리 아이들에게 마을 건네주며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한 노래가 현존하는 최고(最古) 4구체 향가인 '서동요다. 서동과 선화는 나라와 시대를 초월해 지금도 유명세를 떨치는 러브스토리의 완결판이다.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RUC추진1팀
최우혁 사우의 롤모델
야구선수 '이승엽'



“

2003년,
야구장에 잠자리채가 등장했다.
한 야구선수의 홈런공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프로야구 한 시즌 최다홈런이자 아시아
신기록인 56개째의 홈런공!
이승엽이 이 해프닝의
주인공이었다.

”

야구선수 '이승엽'

글 | 최우혁 (RUC추진1팀)

대구 출신이고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삼성라이온즈 팬 아닌 사람이 있을까? 어릴 적부터 삼성라이온즈의 팬이었다. 그 중에서도 항상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4번 타자 이승엽을 좋아한다.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선수가 나의 롤모델이다.

이승엽은 한국 최고의 타자로 활약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장래가 촉망받는 투수였다. 청룡기 야구대회 최우수 투수상까지 수상하며 화려하게 삼성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하였으나,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투수생활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이승엽은 방황하지 않고 타자로 전향하여 한국 프로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타자가 되었다.

이승엽 선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기에 재학 시절 그를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다. 그가 모교를 방문하여 한 연설을 지금도 기억한다. "포기하지 말아라.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후배 야구부원들과 함께 야구 연습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승엽 선수가 한 말 중에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지 않도록 해준 말이 있다. 이 말을 되새기노라면 언제나 힘이 난다.

—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현역에서 활약하는 이승엽 선수, 화이팅!

노력하는 천재, 국민타자 이승엽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준결승 경기. 국가대표 4번 타자 이승엽은 7경기 3안타로 올림픽 기간 내내 부진했다. 대표팀 김경문 감독은 부진한 그에게 꾸준히 출장기회를 줬지만 쉽게 제 컨디션을 찾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준결승에서도 7회까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2:2 동점이던 운명의 8회. 그는 왜 자신이 대한민국의 4번 타자인지 역전 2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증명했다.

경기 직후 그가 보인 눈물은 '베이징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승엽은 카메라 앞에 서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부진해서... 후배들한테 미안해서..."라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 못한 말 뒤에 감춰진 그의 고뇌와 숨은 노력까지.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눈에 띄는 선수였다. 청소년 시절 투구와 타격 모두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특히 좌완투수로 좀 더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고교시절 당한 팔꿈치 부상의 후유증으로 투수 훈련에 애를 먹어 타자로 전향했는데 프로 첫해부터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입단 3년차인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타격에 몰이 올라 1999년에는 54개의 홈런을 치며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50홈런을 넘어서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대기록과 함께 그에게는 '국민타자'라는 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는 타고난 능력으로 리그를 점령한 천재형의 선수로 보인다. 천재형의 선수인 건 맞다. 하지만 그를 완성시킨 건 끊임없는 연습이었다. '노력하는 천재'는 그렇게 완성형의 타자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늘 놀라운 기록을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

화려하기만 할 것 같은 그의 선수생활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후 슬럼프를 겪으며 2005년 2군으로 강등된 것. 하지만 그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연습에 연습이 이어질 뿐이었다. 연습은 결과로 나타났다. 4월 초 1군으로 복귀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용되는 등 매 경기에 출장할 수 없었지만 그 시즌 팀 최다 홈런인 30개를 쳤다.

그리고 2012년, 이승엽은 한국프로야구에 다시 등장해 현재까지도 삼성라이온즈의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로는 할아버지뻘인 40살을 바라보는 나이. 그러나 꾸준한 연습으로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온 그는 최근인 6월 17일에도 3연타석 홈런을 치며 건재를 과시했고 그를 지켜보는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뜨거운 도시 대구 K뮤지컬의 용광로가 되다

2014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세계로 도약하는 K뮤지컬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2014년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7일간 대구에서는 새로운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색다른 공연이 대구 주요 공연장 및 시내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한류가 K팝과 드라마로 양적인 팽창을 했다면 대구가 중심이 되는 K뮤지컬은 한류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은 뮤지컬 팬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축제다.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의 전국 5개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뮤지컬 팬들이 주목하는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Exciting Global K-Musical DIMF'를 주제로 한국 뮤지컬의 세계적인 도약에 박차를 가하며 일반시민에게도 인기축제로 자리 잡았다.

대구를 찾은 세계적인 뮤지컬

공식초청작 중 개막 공연 두 편은 동유럽(슬로바키아) 뮤지컬 <마타하리>와 중국 창작 뮤지컬 <마마 러브미 원스 어게인>으로 두 공연 모두 현지에서 가장 주목 받는 흥행 뮤지컬이다.

<마타하리>는 세계 제1차대전 시 프랑스와 독일을 넘나들던 이중간첩 '마타하리'의 일생을 다루었는데 슬로바키아 국민 가수 '시사 스피로브스까'의 매혹적이고 강렬한 존재감과 가창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마 러브미 원스 어게인>은 중국 창작 뮤지컬의 대가 '리둔 감독'의 3년만의 복귀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다국적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무대 미학을 선보인다. 폐막작 <몬테크리스토>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 아크로바틱을 응용한 화려한 앙상블 군무, 뛰어난 무대 활용, 폐부를 찌르는 러시아 특유의 음악 선율 등이 어우러져 이미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2014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일 정

2014년 6월 28일(토) ~ 7월14일(월)

장 소

대구오페라하우스 외

예 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DGETicket부스

문 의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사무국
www.dimf.or.kr



관객과 함께 하는 DIMF

DIMF는 창작뮤지컬 제작과 해외진출, 창작 지원 사업에도 앞장서왔다. 이를 통해 맺은 뮤지컬계의 차세대 스타들과의 인연은 DIMF의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페스티벌 기간 중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속 축제인 'dimf in DIMF'가 진행된다. 신진예술가들과 관객이 함께 무대를 만드는 거리축제 '딤프 린지(DIMFringe) 페스티벌', 배우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뮤지컬음악 레슨과 무대를 제공하는 '나도 뮤지컬 스타', 뮤지컬 전문가가 무대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DIMF 백스테이지 투어'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특히 한여름 밤, 야외오디션 프로그램 'DIMF 뮤지컬 전국 노래자랑'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재미가 더하다. 🌟



대구 산격주유소



대구 금호강에서 경상북도청 가는 길에 위치한 주유소로, 특이하게 빌딩건물 1층에 자리 잡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셀프주유 고객의 불편이 전혀 없다. 편안함이 매력적인 주유소다.

대구시 북구 연암로 111 (산격동) ☎ 053)943-6360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오실 때
산격주유소
꼭 들려주세요!



대구지사
김상필 사우

대구하면? 막창, 막창골뱅이!



1970년대 초부터 막창문화가 시작됐는데 대구에서는 유독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주로 소막창구이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돼지 막창도 즐겨 먹는다. 옛 미도극장 근처 황금막창(남구 앞산관광호텔 맞은편으로 이전)을 출발로 서울 상동 막창시대를 거쳐 IMF 직후 두산동 아리조나막창 등 식당들이 '막창 붐 릴레이'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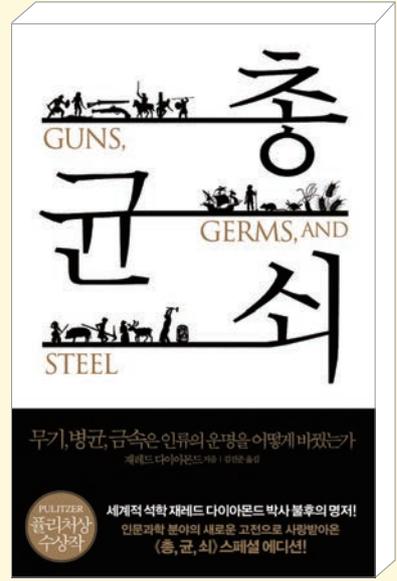


추천 막창 맛집

- 동봉숯불구이 (수성구 동대구로52길 14-5)
- 장아저씨 행복한막창 (달서구 상화로 73)
- 아리조나막창 (수성구 지산로3길 133)

비옥한 땅, 환경이 낳은 문명의 격차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총, 균, 쇠>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영훈(리스크관리팀)

모 대학 도서관 대출 순위 1위라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된 <총, 균, 쇠>. 개인적으로 역사와 관련된 도서를 좋아하는데도 책의 분량을 확인하고는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롤로그에서부터 푹 빠져 들었고 다음 장이 계속 궁금해졌다. 흥미로운 주제인 '문명 간 힘의 우위 비교'에 대하여, 획기적인 소재인 총, 균, 쇠로 명쾌하게 원인을 분석해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양식을 이 차는 것을 느꼈다.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연구가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생리학으로 과학 인생을 시작해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 등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월간지 <네이처Nature>, <내추럴 히스토리Natural History>, <디스커버discover> 등 수많은 고정란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이며 이들 과학지의 논설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1998년 독특한 책 한 권으로 풀리처상 논픽션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오늘 소개하는 <총, 균, 쇠>로 말이다.

우리는 인류가 불의 발견을 통해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 또, 역사 수업을 통해 청동기가 철기로 넘어갔다거나, 청동기를 사용하는 부족이 철기를 사용하는 부족에게 점령당했다는 정보를 배웠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갖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 흐름을 연구했다라면 아마도 이 책의 저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자는 인류학 조사를 위해 폴리네시아 열도 뉴기니 등에 방문했다가 그곳 원주민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한탄에 가까웠을 이 말에 제레드는 심각하게 몰입했다. 그리고 인종을 떠나 인간이 처한 환경과 이의 개발이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환경 개발의 대표적인 예로 총기와 병균, 금속, 이것들의 영향력을 통해,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원주민들은 도태되고 있는가, 왜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겼는가 등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의문을 명쾌하게 분석해냈다. 이전의 인종주의적 설명을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 발전 보고서가 등장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자연환경이 가진 거대한 힘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하고, 인간이 파괴자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개발이 권력인 시대는 아직도 힘을 발하고 있지만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때를 맞은 건 아닐까? 🌱

본 도서는 지난 6월 1~30일 본사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

〈총, 균, 쇠〉와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책
 철도와 근대 한국문명

애니메이션
 철기와 자연 대립의 역사

영화
 무기와 권력

매혹의 철주 근대의 횡단
 철도를 통해 엿보는 근대 우리나라



저자 박천홍
 출판사 산처럼
 출판년도 2003

‘철도로 돌아본 근대의 풍경’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으로, 철도가 그려놓은 오욕과 수치의 한국 근대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새로운 시도의 책이다. 이상의 〈12월 12일〉, 염상섭의 〈만세전〉,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학작품과 사료 속에 등장하는 우리 철도문명의 모습을 그려낸다.

지금은 철도가 산업화의 상징, 여행의 대명사로 여겨지지만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경이의 대상으로 보이던 모습부터 수탈의 수단으로 사용된 일제시대, 그리고 철도가 바꿔놓은 이른바 ‘탈근대성’까지 흥미롭게 다룬다.

모노노케 히메
 자연에서 온 철, 철기로 겨는 자연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개봉년도 1997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는 옛 이야기의 상상력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주제를 다룬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유명하다. 〈벼랑 위의 포뇨〉,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등이 그의 작품이다.

〈모노노케 히메〉는 ‘원령공주’로 잘 알려진 작품으로 직접적인 인간문명의 시작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연을 대표하는 각 산맥의 수호신들과 야생의 히로인 ‘산’, 자연을 파괴하며 그들의 국가를 세우려는 ‘에보시’, 이를 중재하려는 남자 주인공 ‘아시타카’. 그런데 여기서 신과 대립하는 인간의 무기가 바로 철과 총포다. 자연의 파괴와 인간의 생존, 공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로드 오브 워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가들의 무기거래



감독 앤드류 니콜
 주연 니콜라스 케이지
 개봉년도 2005

“지구를 상속받게 될 자는? 무기상들이지. 살아남는 비결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야. 특히 자신과는 절대!” 영화 〈로드 오브 워〉는 잘 나가는 국가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인 걸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상업오락영화이다. 그러나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엔의 안전보장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 나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원이기도 하다. 이익을 위해 생명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무기가 유통된다는 점, 유통의 논리가 안전이라는 점 등, 재밌게 영화를 즐긴 뒤에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와 영화 〈로드 오브 워〉의 한 장면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등... 이 중에서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3대 영양소라 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다. 그러나 뭐든지 지나친 건 문제라고 했다. 영양소도 마찬가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 알아보자.

먹어도 먹어도 “맨날 배고파~”

탄수화물 중독



글 실는 순서

- 알코올 중독
- 스마트폰 중독
- 담배 중독
- 쇼핑 중독
- 카페인 중독
- 게임 중독
- 탄수화물 중독
- 일 중독
- 인스타그램 중독
- 취미 중독
- 설탕 중독
- 관계 중독

01. 우리 몸의 가솔린과 같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솔린과 같다. 몸과 뇌 활동의 주 영양소가 되는 탄수화물. 섭취하면 몸 안에서 포도당이 되어 우리를 활동하게 해준다. 식사를 거르면 혈액 중의 당이 적어져 초조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탄수화물 가운데 하나인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등 대장 기능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다. 잡곡, 잡곡 빵, 감자 등 식이섬유가 많은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2. 과다 섭취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을 부른다

탄수화물 중독은 다른 말로 '설탕 중독', '단순당 중독'으로 불린다. 단 음식을 찾는 버릇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단 음식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단맛이 일종의 쾌감을 동반해서이다. 중독되면 정제된 설탕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을 필요 이상 섭취하면서도 계속 허기를 느낀다. 갑자기 식탐이 늘거나, 쌀밥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 커피를 마실 때 평소보다 각설탕을 더 넣거나, 항상 몸이 나른하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의외로 쉽게 걸릴 수 있는 탄수화물 중독은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다. 한 일간지의 조사 결과로는 한국인 10명 중 6명이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03.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①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다. ②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는 피한다. ③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④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는다. ⑤ 식욕억제제의 도움을 받는다. 또, 운동을 통해 인슐린의 농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



탄수화물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아래의 20가지 항목 중에 0~6개에 해당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다. 7~13개에 해당하면 탄수화물 중독을 경계해야 한다.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14개 이상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비만은 물론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 성인병에 쉽게 걸릴 수 있으니 당장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 식사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허기가 진다.
- 식사한 뒤 단맛이 도는 디저트를 즐긴다.
- 원두커피보다는 설탕을 넣은 커피를 즐긴다.
-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당긴다.
- 스트레스 받을 때 간식을 먹으면 기분이 안정이 된다.
- 무언가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 습관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찾게 된다.
- 아침을 거른 날보다 아침을 먹은 날, 점심식사 전 더 허기진다.
-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즐겨먹는다.
- 식사한 뒤 졸리고 나른한 경우가 종종 있다.
- 빵이나 과자, 케익을 먹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먹게 된다.
-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쉽게 들지 않는다.
- 배가 불러도 음식을 제한하지 못한다.
- 부모 중 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분이 계시다.
-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을 선호한다.
- 주 3회 이상 밀가루 음식으로 식사한다.
-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거나 보기만 해도 식탐이 강하게 든다.
- 평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 운동량도 많지 않다.
-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다시 쉽게 찐다.
- 부모형제나 친인척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다.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 곡물빵, 굴, 브로콜리, 고구마, 사과, 콩, 밀, 보리, 현미, 곡류

나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 과자, 초콜릿, 설탕, 도넛,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



독자퀴즈



◀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황윤섭 윤활유2과
오세익 탈황1과
김예지 육상출하과 김정훈 사우 자녀
이득주 고객(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USB저장장치

남호천 Aromatics생산2과
이원 품질관리1과
김미숙 태광주유소(충남 천안시 서북부 성거읍)
김득원 고객(부산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주요소식> 프리미엄 윤활유 S-OIL7 출시
 품질이 한층 향상된 명품엔진오일이 나왔으니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을 홍보해야겠습니다.
 허경태(탈황1과)



<주요소식> Think Twice 캠페인
 비용절감·이익개선에 관한 캠페인 기사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안순연(남고문주유소, 전남 나주시 남고문로)



<최강 팀> 인천저유소
 안전강화를 위해 힘쓰는 인천저유소의 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영(고객, 전북 군산시 해망로)



<햇살나눔> 캘린더
 지난 한 달의 햇살나눔을 보며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박지민(석유화학운영팀)



<햇살나눔> 계전부 아동센터 어린이 동행 야외활동
 우리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봉사단과 서바이벌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참 뿌듯했습니다.
 조민지(계기1과 조영식 사우 자네)



<햇살나눔> Aromatics생산2부 장애인 동행 체험
 봉사단과 함께 초코머핀을 들어보이며 웃는 장애인들의 표정에서 성취감과 보람이 느껴집니다.
 장현이(고객서비스팀)



<가족 행복 발자국>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행사
 신입사원 가족을 위해 초청행사를 연 에스-오일 이야말로 참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민(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야호! 축제다> 무주 반딧불이 축제
 이번 기회에 무주에 가서 반딧불이 축제에 참가해보고 싶네요.
 문덕원(정유3과)



<걷고 싶은 길> 부산 기장 등대길
 가까이 있으면서도 걷지 못한 길입니다. 무엇이 그리도 바빠 잊고 살았나 싶습니다.
 박홍양(분해2과)

바다 갈매기 벗하며 걷는 '갈매길' 경치가 아름다워서 나도 가고 싶어요.
 최지율(수소3과 최진욱 사우 자네)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